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이 노인 삶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20년 전국 17개 시·도 노인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김은경
국민대학교 교양 대학

Effects of an Age-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on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17 Cities and Provinces in 2020 Elderly Survey

Eun Kyung Kim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고령 친화 지역사회 환경요소와 노인의 우울과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2020년 노인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요소들과 노인 우울과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빈도와 노선, 치안과 안전, 자녀와 친지와의 거리,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수록 우울함이 낮아지는 부적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대중교통의 빈도와 노선의 고령 친화적 제고로 인해 자녀와 친지와의 교류를 더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는 세대 통합적인 사회 활동을 촉진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data from the 2020 Elderly Survey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ge-friendly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community and depression. The results reveal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ge-friendly environment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As satisfaction increased with the routes and frequ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order and safety, distance from children and relatives, and interactions with neighbors,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decreased. The results yield three key suggestions. First, given the current intensification of an aging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connection with children and relatives by improving the frequ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to prevent the elderly from becoming isolated and alienated from the commun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fety and security so the elderly, who lack self-defense capabilities, can live safely and comfortably in the community. Third, social service facilities or institutions should organize programs to promote intergenerational social activities that enable the creation of new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within the community to reduc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Keywords : Age-friendly Environments, Depression, the Elderly, Communi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Kim (Kookmin Univ.)

email: sena8054@kookmin.ac.kr

Received June 1, 2023

Revised July 11,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은 0.78명을 기록하여 OECD 국가 평균 출산 1.6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1] 더욱이 65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의 17.5%이고 2025년에는 20.6%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2].

그러나 현대의 노인은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 활동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활동적인 노년을 추구하므로[3]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화 현상을 무조건 사회적 문제로만 여기지 않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4]. 이를 위해 노인들이 현재의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사회적 교류를 하며 노화하는 Aging in Place: AIP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인해 최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5].

2007년부터 WHO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발간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환경 조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6]. WHO가 말하는 "고령 친화 도시(Age-friendly Cities)"에서 노인은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지향한다[3].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정책과 서비스 환경을 갖춘 고령 친화 지역사회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노화하는 개념으로 공간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도 강조하였다[7,8].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층은 빈곤과 고독 및 질병 등의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울함에 취약하며[9], 우울은 결국 자살의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과 비교해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노인 빈곤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10]. 우울한 노인은 일반적으로 현실을 실제로 더 부정적인 태도로 반추하는 경향이 높고 과거 경험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낮은 자아 통합을 이룬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아지면서 우울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11]. 노인의 우울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경제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노인을 둘러싼 지역

사회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며[10]. 특히 주거지 인근 지역사회 환경은 생활 범위가 좁은 고령자에게 있어 일상 생활의 공간이며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로 우울감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9].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은 정신 건강을 위한 다른 대체자원이 젊은 층보다 부족하여 지역 시설이나 공간의 이용 시간이 길어져 지역사회 환경 자원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12].

따라서 WHO가 지향하는 고령 친화 지역사회 환경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여 노인의 자아 통합을 증진하고,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년기가 갖는 개인적·사회적 의미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령 친화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13], 고령 친화 지역사회 환경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울의 위험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Choi 와 Ju [10]의 연구 결과 노인의 거주지의 환경요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함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 친화적 환경요소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와 우울과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1.2 연구의 목적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요소들과 노인들의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고령 친화적 각 지역사회 환경 요소들과 노인 우울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해 본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실천적 제안을 제시한다.

2. 본론

2.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이 노인 우울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노인실태 조사를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노인복지법 제 5조에 근거

하여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원자료는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을 통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 17개 시·도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포함하고 있다[22].

시·도별로 거주지역, 나이, 성별, 학력, 가구 형태, 교육 수준, 취업상태, 연 가구 소득 등의 자료가 포함되었다[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시설 거주 노인을 제외한 거주 노인들의 지역사회 생활 환경 요소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15문항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분석에 활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노인 실태 조사 총참여자 10,097명 중 만 65세 미만으로 응답한 조사자를 SPSS 원자료에서 제외하여 법정 노인 연령 만 65세 이상자인 총 9,677명을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로 활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2.2.1 종속변수: 노인 우울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의 15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9) 바깥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12) 지금의 나 자신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15개 질문 문항 중 긍정 문항인 1, 5, 7, 11, 15문항은 예, 0점 아니요, 1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문항은 예, 1점 아니요, 0점으로 계산하여 합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노인 우울함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0$ 으로 나타났다.

2.2.2 독립변수: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요소

고령 친화적 환경요소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HO가 제시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6가지 요소를[6]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첫째, 주거 외부공간 시설 둘째, 교통 셋째, 안전 및 치안 넷째, 녹지공간 다섯째, 자녀 및 친지와와의 접근성 여섯째,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이다. 독립변수 6개 항목에 대한 원자료 응답은 1) 매우 만족 2) 만족 3) 그저 그렇다 4) 불만족 5) 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만족 5) 매우 만족으로 역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6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8$ 이다.

2.2.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노인 가구의 삶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나이, 학력 수준, 건강, 소득 수준 등의 변인[10,14] 과 성별, 고용 여부도 포함하였다. 나이는 만 나이를 활용하였고,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미만은 0, 고등학교 이상은 1로 더미 변수화하였고 신체적 건강의 경우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충수를 사용하였다. 고용 여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0, 경제활동 하는 경우는 1로 더미화하여 투입하였다. 소득 수준은 연간 총가구 소득을 활용하되 응답자 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로그함수로 처리하였다.

2.3 분석 방법

지역사회 노인들의 고령 친화적 환경요인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노인실태 조사 원자료를 본 연구 목적을 위한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원자료를 역채점, 더미변수 및 로그함수 등으로 재구성하여서 최종 변수로 투입하였다. 자료에 대해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이용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기준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투입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고령 친화 지역사회 환경과 노인 우울 간의 요인별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자세한 설명 값을 살펴보기 위해 Model 1은 통제변수만 투입했

고, Model 2는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노인가구의 나이, 성별, 신체적 건강, 교육 수준, 고용 여부, 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는 총 9,667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74세(SD=6.443)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9% 남성이 41%이었다. 신체적 건강 상태는 만성 질환 수로 계산하였으며 평균 1.83(SD=1.471)으로 약 2개 정도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단축형 우울 척도를 활용한 정신적 우울 점수는 8점 이상이면 우울로 판단하는 평균은 3.36(SD=3.40)이었다. 본 연구 노인 응답자 중 71%가 동부에 거주하여 노인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읍·면 부에 속하는 농·어촌 거주 노인은 29%에 해당하였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이상이 단지 3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39%만이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 가구 총소득은 평균 약 1,504만 원 (SD=2300.811)으로 월평균 125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 변수인 삶의 우울함에 대한 각 독립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1$). 즉, 생활·편의·사회 의료 서비스 기관의 거리와 노인의 우울과 상관관계(-.077)이다. 대중교통의 빈도와 노선에 대한 노인의 우울과 상관관계(-.056), 녹지공간의 충분성 및 거리와 노인의 우울과 상관관계(-.112), 치안 및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과 노인의 우울과 상관관계(-.088), 자녀와 친지와 의 거리와 노인의 우울과 상관관계(-.117), 이웃과 교류 기회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의 우울과 상관관계(-.161)이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생활·편의 시설과 사회·의료기관과의 대중교통의 빈도와 노선에 대한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606)로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각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3.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과 노인의 우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Model 1의 설명력은 13.7%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질환 수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노인의 우울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노인의 총수입은 유의확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9,677)

Spec.		N(%)	M(S.D)
Age		74세(SD=6.443)	
Gender	Female	5,692명(59%)	
	Male	3,985명(41%)	
Physical Health	Number of Chronic diseases	1.83(SD=1.471)	
Residence	City Area	6,900명(71%)	
	Rural Area	2,777명(29%)	
Education Level	Junior High School or Lower	6,211명(64%)	
	High School or Higher	3,466명(36%)	
Employment Status	Employed	3,729명(39%)	
	Unemployed	5,948명(61%)	
Yearly Income	Gross Annual Household Income	1,504만원 (SD=2300.81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Living Amenities	1						
2. Public Transportation	.606**	1					
3. Green Space	.316**	.328**	1				
4. Security and Safety	.424**	.431**	.461**	1			
5. Children and Relatives	.422**	.386**	.370**	.397**	1		
6. Neighbors	.300**	.326**	.405**	.372**	.422**	1	
7. Depression	-.077**	-.056**	-.112**	-.088**	-.117**	-.161**	1

주: ** p<.01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1		Model 2	
	β	t	β	t
Control Variables				
Age	.026	4.605***	.027	4.726***
Gender	.053	.747	.061	.873
Education Level	-.772	-10.337***	-.710	-9.547***
Physical Health	.674	29.248***	.654	28.519***
Employment Status	-.450	-6.043***	-.419	-5.659***
Yearly Income	-.056	-1.494	-.051	-1.359
Age-friendly Environment				
living Amenities			.015	.277
Public Transportation			.115	2.252*
Green Space			-.083	-1.834
Security and Public Safety			-.122	-2.406*
Children and Relatives			-.118	-2.619**
Neighbors			-.499	-9.617***
R ² /Adjusted R ²	.137***/.136***		.155***/.154***	
F	250.526***		145.269***	

*** p<.001, ** p<.01, * p<.05, 2) Tolerance > 0.1 VIF ≤10

이 조건(p< .05)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과 노인의 우울 정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Model 2의 설명력은 사회·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녹지 공간의 충분성 및 거리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의 우울은 유의미한 관계 조건(p< .05)를 충족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외 변수들인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 = .115$, p< .05), 치안 및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 = .122$, p< .05), 자녀 친지와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beta = .128$, p< .01) 이웃 간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beta = .499$, p< .001) 노인의 우울 정도에 낮아지는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Model 1에서의 F=250.526이고 모형 2에서의 145.269로서 F값의 변화량은 약 105.257로서 이러한 변화는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났다 (p< .001). 따라서, 본 연구분석 결과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요소인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와 치안 및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 자녀 친지와 거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정도가 낮아지는 부적 영향 관계를 보였으며 Table 3은 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0년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환경이 노인의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현재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수가 많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졌으나 교육 정도가 높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울 정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WHO가 제시한 고령 친화적 환경요소 즉, 주거 외부공간인 편의시설과 녹지공간, 이동성을 나타내는 대중교통, 지역의 안전 및 치안, 가족 및 친지와 거리 및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본연구결과 대중교통의 빈도와 노선에 대한 편의성, 자녀 친지와 거리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가 올라갈수록 또한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노인의 만족이 올라갈수록 노인의 우울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안전하고 친숙한 거주지에서 가족과 친지 및 이웃과 교류하며 노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단지 거주지의 개념을 넘어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로의 지속적인 환경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5,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생활 편의시설, 사회복지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 그리고 녹지공간의 충분성은 노인의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Kim[15]의 연구에서 이러한 고령 친화적 환경 요소들이 노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물리적 지역사회 환경보다 사람과의 관계 즉, 본 연구 결과에서 가족·친지와와의 접근성이나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이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근거하여 노인 우울에는 가족·친지·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인이 혼자 녹지공간인 공원을 산책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과의 만족스러운 교류가 노인 우울감 감소에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 삶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게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성은 노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15] 우울을 낮추므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빈도 및 노선의 고령 친화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함과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는 거리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16]. 또한 도로 정비 및 교통표지판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고령 운전자를 위해서는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17]. 특히 노인에게 있어 교통의 편의성 증진은 거주지에서 자녀 및 친지와와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므로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고[15] 우울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며 노인이 거주지에서 고립되고 소외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치안과 안전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지역사회 환경으로 지역사회에서 노화(AIP)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16]. 따라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치안과 안전은 필수적이다. 이에 구석진 골목이나 노인이 자주 사용하는 좁고 어두운 보행로 등에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설비와 치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18].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안전과 치안 환경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노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고령 친화 지역사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5]. 이는 노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과 생애 전반에 걸쳐 교류하는 세대 통합적인 건강한 지역 사회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함으로써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19]. 따라서 이웃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시민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마

련과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12]. 노인 우울을 예방하고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의 사업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20]. 나아가 경로당, 주간 보호시설, 노인 교실 등 노인 이용 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21]. 궁극적으로 노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외와 고독감에 따른 우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 물리적 고령 친화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세대 간 소통하며 교류하는 환경조성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15].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노화에 대한 자신감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노인의 욕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노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를 포함한 지역에서 노화할 수 있는 통합된 지역사회 환경조성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5.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0년 노인실태 자료는 시설 거주 노인을 제외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노화하기 위한 고령 친화적 환경이 조사에 추가되었음에도[22] 2차 자료인 관계로 분석을 통한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고령 친화 환경요소 항목을 세분화하여 노인 우울감과의 영향 관계를 직접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면 연구의 독창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 [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714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qlynv7ql8lo>
- [3] M. K. Park,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as a human resource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society and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ology and Practice*, Vol.82, pp.667-693, 2022.

- [4] H. K. Kim, "A Study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Population Aging as a 'Social Crisis'", *Daewoo Foundation's Knowledge Horizon*, Vol.33, pp.60-77, 2022.
- [5] L.A. Wiles, L.N. Guberman, J. Reeve, and R. E. S. Allen.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52, No.3, pp.357-366, 2012. DOI: <https://dx.doi.org/10.1093/geront/gnr098>
- [6]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pp.1-145, 2007.
- [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he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Looking back over the last decad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2018. Available From: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278979>
- [8] S. D. Jung, "Age integration and age-friendly cities", *Korean Geographical Society Conference Proceedings*,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eoul, South Korea), pp. 289-290, 2014.
- [9] S. R. Lee, I. K. Park, "The effect of settlement inclusivity on older people's mental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36, No.4, pp.3-23, 2020. DOI: <https://doi.org/10.22669/krsa.2020.36.4.003>
- [10] H. Y. Choi, H. J. Ju,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Environment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According to Apartment Residence or No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Vol.36, No.4, pp.273-293, 2022. DOI: <https://doi.org/10.18398/kilgas.2022.36.4.273>
- [11] S. S. Ju, S. H. Ko, J. Y. Kim, H. K. Kim, "Impact of Frailty, Depression, and Loneliness on Ego-Integrity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Stress Study*, Vol.30, No.3, pp.139-146, 2022. DOI: <https://doi.org/10.17547/kjsr.2022.30.3.139>
- [12] J. Y.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elf-Rated Health or Depression: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2, pp.290-315, 2018. UCI: 1410-ECN-0102-2018-300-003911326
- [13] K. H. Jung,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stablishment of Age-friendly Cities: Background and Significanc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Oct 30, 2010. pp.110-112, 2010. UCI: 1410-ECN-0102-2018-300-000224146
- [14] H. J. Le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mong the oldest-old : The mediating effect of gerotranscendence",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5, No.3, pp.9-29, 2020. DOI: <https://doi.org/10.21194/kjgsw.75.3.202009.9>
- [15] E. K Kim, "The Effects of Aging-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for Aging in Place (AIP)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3, No.4, pp.527-539, 2023. DOI: <https://doi.org/10.5392/JKCA.2023.23.04.527>
- [16] E. K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ge-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8, No.2, pp.21-26, 2023. DOI: <http://dx.doi.org/10.31152/JB.2023.04.8.2.21>
- [17] Y. W. Kim, K. M. Song, J. W. Jung, ONG Ki-Min, Jeong Jin Wook, "A Study on the Important Factors of Physical Aging Friendly City Environment for AIP(Aging in Place) in Rural Areas 50+ Generations", *The Journal of Korean Long Term Care*, Vol.9, No.2. pp. 103-121, 2021. DOI: <http://dx.doi.org/10.32928/TJLTC.9.2.5>
- [18] S. E. Lee, "Factors Affecting Protective Behaviors When Walking at Night in the Community among the Elderly", *Culture and convergence*, Vol.40, No.6. pp. pp.541-558, 2018.
- [19] H. S. Yoon, H. S. Jun, "Analysis of community age-friendliness for the creation of a generation-integrated super-aged society community: Focusing on Yeongdeungpo-gu and Yongin-si", *Hallym Journal of Aging Studies*, Vol.6, No.1, pp.25-47. 2018. DOI: <http://doi.org/10.35187/HJAS.2018.6.1.25>
- [20] S. H. Cho, Y. S. Yoo,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ged People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1, No.4, pp.35-59, 2016.
- [21] C. M. Yun, J. H. Par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Modul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5, No.1, pp.35-64, 2020. DOI: <http://doi.org/10.21194/kjgsw.75.1.202003.35>
- [22] S. J. Kim, N. H. Hwang, J. M. Yim, B. H. Ju, E.H. Namgung, 2020 Elderly Survey, Final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1-911.

김 은 경(Eun Kyung Kim)

[정회원]



- 1990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문학사)
- 1998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문학석사)
- 2005년 5월 :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Christian Education and Ministry-Based Evangelism and Discipleship (MA.)
- 2013년 12월 : University of North Texas, Applied Gerontology (Ph.D.)
- 2021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노인상담, 노인고용, 응용노인학